

# 온라인 정보원의 인지적 권위가 대학생의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s of Cognitive Authority of Online Sources on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Information Evaluation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lch519@skku.edu  
Chang-Ho, Lee, Dept. of LI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정보원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변인에 따라, 온라인 학술논문, 온라인 사전, 소셜 Q&A, 온라인 사전에 대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의 정확성, 포괄성, 객관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온라인 사전, 소셜 Q&A, 온라인 사전의 인지적 권위는 과제정보의 정확성, 포괄성, 객관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학술논문의 인지적 권위는 과제정보의 정확성, 포괄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얻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접근성과 사용편이성 등의 이유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성재, 2016).

한편 이러한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정보원들이 검색 결과에 함께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관련 뉴스 기사부터 논문, 소셜 Q&A 서비스, 백과사전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원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원들은 종류에 따라 다른 인지적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권위는 정보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Yi et al.,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정보원 사이에 나타나는 인지적 권위의 차이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원을 이용할 때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인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인지적 권위가 대학생의 과제정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인지적 권위(Cognitive Authority)

인지적 권위는 영향력의 한 종류로, 적절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를 말한다. 정보의 품질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 등 2차적 지식을 통해 정보를 평가하게 된다. 2차적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인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인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지적 권위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다(Wilson, 1983; Yi et al., 2012).

인지적 권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인지적 권위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인지적 권위를 통해 전달되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하나의 대상이라도 분야에 따라 인지적 권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인지적 권위는 저자, 출판사, 유형, 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판단될 수 있다(Wilson, 1983).

인지적 권위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인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신뢰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권위의 개념은 온라인 정보원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정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Yi et al., 2012).

## 2.2 선행연구

인지적 권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 대부분의 정보는 인쇄자료 중심이었고, 인쇄자료와 비교하여 다양한 종류와 형식을 가진 온라인 정보원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정보원을 이용할 때의 인지적 권위에 대한 연구가 등장했다. 관련 연구로 Rieh(2002)는 이용자가 웹페이지 탐색 과정에서 저자 정보, 제공기관의 특성,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가지는 인지

적 권위를 통해 웹페이지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학업정보 탐색 시 대학생의 정보 판단 기준을 연구한 Currie et al.(2010)과 대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검색할 때 나타나는 정보 판단 기준을 연구한 Neal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Yi et al.(2012)는 미국 내 한국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건강정보의 품질을 평가할 때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 신뢰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보의 품질을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인지적 권위가 정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 온라인 학술논문, 온라인 사전, 소셜 Q&A, 온라인 뉴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박성재, 2016; Lee, Paik & Joo, 201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각 정보원에 대한 인지적 권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종속변인의 경우 정보원의 품질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확성, 포괄성, 객관성으로 설정했다.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출처
정확성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되며, 철자 오류나 누락 없이 표현된 정도	김성희, 박해진 (2014)
포괄성	찾고자 하는 주제에 관련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	김영기 (2011)
객관성	편견이나 광고, 사적인 주장이 배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홍현진 (2005)

데이터는 S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포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153명의 데이터 중 졸업생 및 불성실한 답변에 해당하는 7부를 제외한 후, 14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SPSS v25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 146명 중 남성은 79명(54.1%), 여성은 67명(45.9%)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4학년 58명(39.7%), 3학년 35명(24.0%), 2학년 32명(21.9%), 1학년 21명(14.4%) 순서로 나타났다. 학생의 전공은 공학 46명(31.5%), 사회과학 42명(28.8%), 인문과학 23명(15.8%), 자연과학 18명(12.3%) 등의 비율을 보였다.

### 4.2 결과 분석

온라인 정보원의 인지적 권위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온라인 학술논문, 온라인 사전, 온라인 뉴스, 소셜 Q&A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온라인 정보원의 인지적 권위

	온라인 학술논문	온라인 사전	소셜 Q&A	온라인 뉴스
인지적 권위	4.00	3.27	2.14	2.82

온라인 학술논문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확성과 포괄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객관성 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온라인 학술논문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p
정확성	.467	.083	.423	5.608	.000
F=31.453, p=.000***, R <sup>2</sup> =.179, AR <sup>2</sup> =.174					
*** p<.001					
포괄성	.315	.075	.331	4.206	.000
F=17.693, p=.000***, R <sup>2</sup> =.109, AR <sup>2</sup> =.103					
*** p<.001					
객관성	.098	.105	.077	.929	.354
F=.864, p=.354, R <sup>2</sup> =.006, AR <sup>2</sup> =-.001					

다음으로, 온라인 사전, 소셜 Q&A와 온라인 뉴스의 인지적 권위는 모두 과제정보의 정확성, 포괄성, 객관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각각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 온라인 사전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p
정확성	.421	.076	.418	5.517	.000
F=30.441, p=.000***, R <sup>2</sup> =.175, AR <sup>2</sup> =.169					
*** p<.001					
포괄성	.227	.071	.256	3.179	.002
F=10.109, p=.002**, R <sup>2</sup> =.066, AR <sup>2</sup> =.059					
* p<.01					
객관성	.298	.085	.281	3.508	.001
F=12.307, p=.001**, R <sup>2</sup> =.079, AR <sup>2</sup> =.072					
** p<.01					

<표 5> 소셜 Q&A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p
정확성	.561	.065	.583	8.615	.000
F=74.212, p=.000***, R <sup>2</sup> =.340, AR <sup>2</sup> =.336					
*** p<.001					
포괄성	.447	.082	.413	5.446	.000
F=29.660, p=.000***, R <sup>2</sup> =.171, AR <sup>2</sup> =.165					
*** p<.001					
객관성	.520	.087	.445	5.964	.000
F=35.567, p=.000***, R <sup>2</sup> =.198, AR <sup>2</sup> =.193					
*** p<.001					

**<표 6> 온라인 뉴스의 인지적 권위가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p
정확성	.580	.069	.572	8.362	.000
F=69.915, p=.000***, R <sup>2</sup> =.327, AR <sup>2</sup> =.322					
*** p<.001					
포괄성	.335	.085	.312	3.942	.000
F=15.543, p=.000***, R <sup>2</sup> =.097, AR <sup>2</sup> =.091					
*** p<.001					
객관성	.548	.084	.477	6.509	.000
F=42.362, p=.000***, R <sup>2</sup> =.227, AR <sup>2</sup> =.222					
***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선 온라인 정보원의 인지적 권위가 대학생의 과제정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온라인 학술논문의 인지적 권위가 객관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온라인 학술논문, 온라인 사전, 소셜 Q&A, 온라인 뉴스의 인지적 권위는 과제정보의 정확성, 포괄성, 객관성을 평가할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ieh(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련 저자, 제공기관, 내용의 전달방식 등도 인지적 권위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원의 종류에 따른 인지적 권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저자, 제공기관, 내용의 전달방식 등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 권위가 정보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성희, 박해진 (2014). 인터넷 포털 학술 정보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

회지, 31(2), 79-97.

김영기 (2011). 온라인 정보원의 비판적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27, 87-109.

박성재 (2016). 대학생 과제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정보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513-532.

홍현진 (2005).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평가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211-235.

Currie, L., Devlin, F., Emde, J., & Graves, K. (2010). Undergraduate search strategies and evaluation criteria. *New Library World*, 111(3/4), 113-124.

Lee, J., Paik, W., & Joo, S. (2012). Information resource sele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academic search tasks. *Information Research*, 17(1). <http://InformationR.net/ir/17-1/paper511.html>

Neal, D., Campbell, A., Williams, L., Liu, Y., & Nussbaumer, D. (2011). I did not realize so many options are availabl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25-33.

Rieh, S. (2002). Judgment of information quality and cognitive authority in the web.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2), 145-161.

Wilson, P. (1983). *Second-hand knowledg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Yi, Y., Stvilia, B., & Mon, L. (2012). Cultural influences on seeking quality health inform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1), 45-51.